

“강진 村캉스’,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강진군, 참가자 21일까지 모집...참가비 1인 93,000원
2박 3일간 푸소 농가 숙박...7종 유료체험 중 2종 무료

강진군이 가성비 여름휴가로 주목받고 있는 ‘강진 푸소 村캉스’ 참가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 93,000원으로 2박 3일간 푸소 농가 숙박과 세끼의 시골밥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자체험, 짚트랙 등 강진을 즐길 수 있는 7종의 유료 체험 중 2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군은 인스타그램 핫 플레이스 추천 여행지, 권역별 여행코스, 관광지도 등 사진에 예약자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중 개인 SNS에 여행 사진을 게시하고 인증하면 푸소 굿즈(goods)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체험객 박수현씨(서울, 32)는 “전절한 사장님과 푸짐한 현지식 밥상 체험이 2박 3일

간의 강진 여행에 든든한 연료가 되었다”며 “올여름 강진에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연이은 폭염에 지친 여행객들이 강진을 찾아 푸소 농가에서 제공되는 정성스런 밥상과 다양한 강진의 관광지를 여행하며, 평생 기억될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며 “매년 휴가철 오고 싶은 강진을 만들 수 있도록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수요에 늘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강진 村캉스 예약은 푸소체험 홈페이지(www.fuso.or.kr) 커뮤니티 MZ 村캉스 예약 페이지에 댓글로 신청을 남기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061-430-33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2015년 5월, 학생들 위주의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강진

푸소 시티투어, 공무원 청렴 푸소 등으로 확장되며 남도답사일번지,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강진 고유의 관광상품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복 양식 가격하락 딜레마’ 완도군, 소비촉진 팔 견었다 유통업체·쇼핑몰·유튜브 통해 홍보

가격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완도 전복 양식 어민들을 위해 완도군이 대대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북·중북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대량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은 양식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의 달 특별전, 여름맛이 이벤트, 북날 특별전, 흡소핀, 대형 유통기업 협업 판매 행사, TV 방송, 유튜브 등 전방위적으로 전복 홍보 판매에 나서고 있다.

북날에는 대형 유통 업체에서 전복 판매 기획전을 열어 250여의 전복을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 ‘완도군이슈’와 전남도의 ‘남도 장터’에서 ‘북날엔 전복데이’ 기획전을 열어 최대 25%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완도 전복 어가 돕기 특별 할인전’을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

또 경기도와 전남 4개 지자체(완도, 해남, 신안, 진도)가 참가하는 ‘전복 양식 어가 돕기’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푸드빌과 상생 협약을 통해 빙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한국 등에서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 판매 중이며 이달 말에는 완도 전복 스테이크도 출시될 예정이다.

구독자 572만 명에 달하는 ‘영국 남자(Korean Englishman)’ 유튜브 채널에서는 완도 전복 체험과 전복 코스 요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완도군은 금산군과 지역 특산물 상생 업무 협약을 맺어 금산 인삼과 완도 전복을 활용한 ‘금산 인삼-완도 전복 삼계탕’을 공동 개발해 출시했다. 현재 온라인 위메프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복 생산량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양식어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전복 집중 판매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기동채재본부



장흥군 장평면, 토종 다슬기 종패 확보 행사 개최

남획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개체 급감 대비 토종자원 보존 및 소득작목 확보

장흥군 장평면에서는 9일 장평천 일원에서 지역 토종 다슬기 종패 확보를 위해 공무원·사회단체장·이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슬기 잡기 행사를 가졌다.

금번 행사는 지역 특화자원인 다슬기가 남획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토종 자원을 보존하고, 소득 작목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에 수집된 다슬기 50여kg은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 1년에 거쳐 치패 생산 후 장평천에 다시 방류되어 특화 자원의 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다슬기 종패 확보 및 치패 방류와 더불어 장평천 일대를 다슬기 목장으로 육성하고 장평 시가지를 중심으로 풍류장평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음식 관광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7일에는 토종 다슬기 종패 18만미를 장평천에 방류하였고, 장흥군 의회와 장평면 사회단체장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슬기 축제와 영월군 다슬기거리, 점단 다슬기 양식장 등을 2회에 걸쳐 벤치마킹 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내가 만드는 건강한 간식’ 실습 교육 운영

지역아동센터 7개소 어린이·청소년 참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대



진도군 보건소는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의 어린이·청소년 180여명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건강한 간식’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청소년의 자발적인 건강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간식 만들기’를 실습 교육으로 추진해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평소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지 않는 아동들의 식습관을 고려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활용한 과일 요거트와 토피아 롤샌드위치 등 건

등 아동들이 건강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간식 만들기에 참여한 어린이는 “채소를 잘 안 먹는 편인데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서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었고 앞으로는 채소를 잘 먹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는 “다양한 영양교육을 통한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